

8世紀 後半 渤海의 對日本外交와 交易*

조 이 옥**

- I. 머리말
- II. 8世紀 後半 國際關係의 再編과 渤海
- III. 文王代 後期 對日外交의 變化와 日本의 態度
- IV. 來着地 利用 與否와 兩國交易의 實態
- V. 맺음말

요약

8세기 후반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일본의 관점에서 정치중심의 외교에서 경제중심의 외교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즉 石井正敏을 비롯한 일본학계의 연구는 764년 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의 무산을 계기로 발해가 번국의 종속적 자세를 감수하면서 대규모 사신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왕대 후기에 해당하는 771년 이래 779년의 단기간에 발해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 2004 - 077 - A00016)."

** 영산대학교 조교수
투고일 2006. 3. 2.
심사일 2006. 3. 6.
심사완료일 2006. 3. 13.

5회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그 규모도 180명에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특히 발해사가 지참한 국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등 발해는 시종 일본에 대하여 고압적인 외교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렇게 8세기 후반 외교형식을 갖춘 대규모의 사신을 파견하였음은 발해의 대일본외교의 목적과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8세기 후반 대륙의 정세변화와 발해의 국가적 성장이라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해는 일본보다 우월한 외교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의례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교역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발해사, 외교자세의 확립, 교역창구, 국제관계의 재편,
내착지



I. 머리말

안사의 난이 끝난 8세기 후반 발해는 대륙의 정세변화와 내적인 성장을 통하여 동북아 일대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安史의 亂(755-763) 이래 주변 이민족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발해는 사실상 당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천보말년에 상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래 발해는 개혁정책을 통하여 대내적 발전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도 대외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770년대 재개되는 대일본외교에서 발해가 시종 상국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고수하면서 교역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8세기 후반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점에서 정치중심의 외교에서 경제 중심의 외교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즉 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의 무산을 계기로 발해가 변국의 증속적 자세를 감수하면서 대규모 사신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¹⁾ 특히 이성시는 8세기 후반 발해가 국내사정인

1) 8세기 후반 渤海와 日本의 관계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成市,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石井正敏, 2001 『光仁・桓武朝の日本と 渤海』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門館; 박진숙, 1997 『발해문왕대의 대일본외교』 『역사학보』 153; ____, 1998 『발해강왕대의 대일본외교』 『충남사학』 10; 具蘭憲, 1999 『8世紀 後半 日本의 對外關係에 관한 고찰-渤海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10집; ____, 2005 『대일본 관계를 통해본 발해의 외교전략』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조이욱, 2005 『8세기 후반 발해와 일본의 외교적 마찰--문왕대 후기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1.

말갈부족에 대한 정치적 통합과정과 관련하여 번국의 종속적인 자세로 대규모 교역을 추진하였다고 하였다.²⁾ 다시 말해 8세기 후반 발해가 대일 외교에 있어 번국의 종속적인 자세를 감수한 것은 교역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이해하였다.

문왕대 후기에 해당하는 771년 이래 779년의 단기간에 발해가 5회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그 규모도 180명에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였다. 특히 발해사가 지참한 국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등 발해는 시종 일본에 대하여 고압적인 외교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해가 번국의 종속적인 자세를 감수하면서 교역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8세기 후반 대륙의 정세변화와 발해의 국가적 성장이라는 대내외적 환경의 요인을 고려할 때, 발해는 일본보다 상국의 우월한 외교자세를 견지하면서 대규모의 교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 글에서는 먼저 8세기 후반 대륙의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해의 국가적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으로 문왕대 후기 외교적 형식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 대한 실상을 통하여 발해의 대일본외교의 변화와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일본의 내척지 이용강요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교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8세기 후반 발해는 일본에 대한 외교자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교역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경제외교를 추진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李成市, 앞의 책, 153-154쪽.

II. 8世紀 後半 國際關係의 再編과 渤海

안사의 난을 계기로 발해는 내적인 성장을 통하여 동북아 일대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즉 안사의 난은 발해가 자국의 대내적인 발전과 대외적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천보말년에 상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발해가 일본과의 외교에서 상국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사회에서 공고해진 대외적 위상을 그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8세기 후반 발해의 대일본외교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발해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와 국제관계의 재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중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안사의 난은 8년만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에 대한 대가는 막대하였다. 국내적으로 당은 율령체제가 전면적으로 파정함에 따라 당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국내의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감소를 포함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사의 난이 매우 불안정하게 종결되면서 각 지방에는 본격적인 藩鎮時代가 도래하였다. 절도사들은 지방의 행정과 재정 그리고 군사권까지 모두 장악하여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³⁾ 당시 변진의 총수는 46-47정도였는데,⁴⁾ 하북지방의 3진과 산동을 거점으로 하는 평로치정

3) 찰스 피터슨/ 김정희 역, 1999 「중흥의 완성; 현종과 변진」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쪽.

4) 岑仲勉, 『隋唐史』, 272-273쪽.

은 가장 반중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안사의 난을 계기로 이전까지 조공과 책봉을 통하여 주변국을 통제하던 당 중심의 세계제국적 질서도 와해되고 말았다. 당초기에 정복되었던 토번, 회홀 등 새외민족들은 당의 동요를 틈타 다시 강성해 졌다. 그들은 특유의 기동력과 민첩한 행동으로 당의 서북 변방을 침략해 당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⁵⁾ 특히 회홀은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데 원조한 대가로 당 왕실과 통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등 당 왕조를 괴롭혔으며, 토번은 약탈전쟁을 일으켜 서북 변경일대인 돈황지역을 점령하기도 하였다.⁶⁾ 토번, 회홀, 위구르 등 서북변경일대에 산재하던 새외민족의 침입이 끊임없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당은 동북방면에 대해서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다. 761년 당의 동북군사 거점인 평로지역이奚에게 함락됨에 따라 당의 동방정책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⁷⁾

이렇게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당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오히려 발해는 당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당의 동북방면에 대한 기미정책이 이완됨에 따라 발해는 당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보말년에 상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이래 문왕은 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각종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⁸⁾ 뿐만 아니라 발해는 대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당과의 관계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5) 박시형, 1979 『발해사』 이론과 실천, 82쪽; 유진오/전인초 역, 2003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437쪽.

6) 金浩東, 1988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知識産業社, 217쪽.

7) 『資治通鑑』 卷222, 上元 2年 5月 戊戌.

日野開三郎, 1984 「安史の亂による唐の東北政策の後退と渤海の小高句麗國占領」 『小高句麗國の研究』 참조.

8) 孫玉良, 1982 「略述的大欽茂其統治下渤海」 『社會科學戰線』 1982-4; 김정배·유재신 편, 1988 『발해국사』 정음사, 재수록.

특히 764년부터 782년까지 약19년 사이에 28회나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였다.⁹⁾ 발해는 당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구려 유민출신인 李正己의 평로치청번진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¹⁰⁾

당 조정은 고구려 유민출신인 이정기에게 平盧淄青節度觀察使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에 제수¹¹⁾하여 발해와 신라의 통제행위에 대한 자치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신라와 발해는 평로치청번진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긴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발해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유민출신들이 다수 존재하며 또 고구려 유민출신인 이정기와 평로치청번진 세력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종래 영주를 통하여 진행되던 발해와 서방의 일체 관계는 치청의 번진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다.¹²⁾ 뿐만 아니라 발해는 당조정과 번진세력과의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켜 나갔다.

당 조정은 산둥반도 전역을 점유하고 당조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평로치청번진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던 발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성장한 발해에 대해 당 조정이 거둬진 진봉을 단행한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당은 발해의 현실적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당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격상시켜주는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¹³⁾ 거둬진 진봉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해의 국가적 위상을 격상시켜 주는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¹⁴⁾ 국제사회에서 발해의 위상이 한 때 신라보다 높은

9) 최의광, 1999 「渤海 文王代の 對唐關係」 『史叢』 50, 17쪽.

10) 金文經, 1984 「唐代高句麗遺民의 藩鎮」 『唐代的 社會와 宗教』 승실대출판부.

11) 『舊唐書』 卷124, 李正己.

12) 박시형, 앞의 책, 88쪽.

13) 『唐書』 卷219, 渤海靺鞨, 寶應元年 太宗 詔以渤海爲國 欽茂王之 進檢校太尉.

14) 『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 大曆中 累加拜司空太尉.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신흥강국으로서의 威勢를 당이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8세기 후반 발해는 당조정과 치청빈진과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재편을 재조정할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하겠다.

당은 발해가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당-발해-신라로 연결되는 국제관계로의 재편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당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발해가 698년 건국한 이래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견제케 함으로써 양국간의 대립을 조장하였다. 732년(개원 20년) 발해의 등주침입이 실마리가 된 당과 발해의 국제분쟁에서도 신라는 당의 명령을 받아 전쟁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현종 개원 말엽 당은 자체적으로 발해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以夷制夷 정책의 일환으로 발해와 대립관계에 있던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케 하여 당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안사의 난이래 강국으로 성장한 발해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당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조장하기 보다는 발해와 신라의 평화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즉 당은 발해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기왕의 友邦인 신라와 발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8세기 후반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가 당-발해-신라로 재편되었음은 764년 당의 사신 韓朝彩가 당에서 발해를 경유하여 신라에 왔다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金才伯 등은 “당나라의 勅使 韓朝彩가 渤海로부터 와서 일본국 승려 戒

15) 최의광, 앞의 논문, 15쪽.

16) 조이옥, 2005 「신라 중대 발해관의 변천과 그 의미」 『신라문화』 25, 156쪽.

融을 호송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미 마쳤다. 만약 평안히 귀향하였으면 당연히 회답이 있을 텐데 오늘에 이르도록 전혀 소식이 없다“고 이르므로,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그 소식을 천자에게 알리고자 하여 이에 執事部の牒을 가지고 太宰府에 왔습니다. 한조채는 길을 떠나 신라의 서쪽포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謝恩使 蘇判 金容은 太宰府의 報牒을 받아서 조채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아직 서울을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 말하였다(하략) (『續日本紀』 卷25, 天平寶字 8년 7월 甲寅).

위의 사료는 신라사 金才伯이 입당승 戒融의 무사귀국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태재부에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여기서 신라사 金才伯은 당나라의 勅使 韓朝彩가 당에 유학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입당승 계용의 귀국보고가 이르지 않자, 발해를 경유해 신라에 온 것은 계용의 귀국안부를 천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¹⁷⁾ 이렇게 입당승 계용의 귀국을 둘러싸고 당의 칙사 한조채는 발해를 경유하여 신라에 도착하였고, 신라의 협조를 얻어 계용의 귀국을 천자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입당승 계용의 귀국보고를 통해서 볼 때, 764년 이래 당을 중심으로 당, 발해, 신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세기 중엽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상설교통로인 新羅道가 개통되면서 상호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764년 당의 사신인 한조채가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에 왔다는 사실은 당-발해-신라로 연결되는 국제관계로의 재편이 사실상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764년이래 동북아 국제관계는 당이 중심이 되면서 발해와 신라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새롭게 변화하였던 것이다. 8세기 후반 발해가 국제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대륙의 정세변화와 발해 자체의 내적인 성장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8세기 후반 당을

17) 浜田耕策, 1995 「留唐學僧戒融の日本歸國をめぐる渤海と新羅」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414-416쪽.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 있어 발해가 신라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발해는 국가적 성장과 대외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771년 이래 대규모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8세기 후반 발해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발해의 국가적 위상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Ⅲ. 文王代 後期 對日外交의 變化와 日本의 態度

8세기 후반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긴장에서 평화로 변화하면서 발해는 자국에 유리한 정세를 모색하는 가운데 다양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즉 국제정세가 긴장완화로 선회됨에 따라 발해의 대일외교는 그 의의가 감소한 반면 당과의 외교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히 발해는 당과 치청변진과의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성공을 바탕으로 국제관계를 재조정할 정도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764년 당의 사신 韓朝彩가 발해에서 신라로 왔다는 사실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 발해와 신라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음을 잘 말해준다.¹⁸⁾ 이와 같이 8세기 후반 당-발해-신라로 연결되는 국제관계의 재편을 도모할 정도로 성장한 발해는 770년대 들어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대일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770년대 재개되는 대일외교에서 발해는 이전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사신을 일본에 파견한 사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762년이래 한동

18) 『續日本紀』 卷22, 天平寶字 8年 7月 甲寅.

안 소강상태에 있던 양국관계는 771년 발해사 靑綏大夫 壹萬福 등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재개되었다. 771년에 파견된 발해사신단의 규모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일본외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는데,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壬午日に 渤海國 사신 靑綏大夫 壹萬福 등 325명이 배 17척을 타고 出羽國 賊地 野代湊에 도착하였다. 常陸國에 편안히 쉬게 하고 대접하였다(『續日本紀』 卷31, 光仁天皇 寶龜 2년 6월 壬午).

771년 발해는 文官 靑綏大夫 壹萬福 등 325명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 발해 사신단은 17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바다를 건너 出羽國 賊地 野代湊에 도착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은 常陸國에 안치시켜 편안히 쉬게 하고 대접하였던 것이다. 이 때 발해는 대사 일만복을 비롯하여 부사, 대판관, 소판관, 녹사, 역어, 품관 등으로¹⁹⁾ 구성된 대규모 사신단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대체로 지금까지 일본에 파견되는 인원은 752년의 경우 75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에는 2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때는 32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일외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신단이었다. 이렇게 외교형식을 갖춘 대규모의 사신이 파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일외교의 목적과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발해사 일만복의 사행목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보아 광인천황이 즉위한지 8개월만이므로 발해가 광인의 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파견하였다고 보기도 하고, 동시에 신라의 대일본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차원의 외교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769년 11월에 도착해 교역을 달성하고 돌아간 신라사 金初正 일행에 대한 견제차원의 외교일

19) 『續日本紀』 卷32, 寶龜 3년 2月 癸丑.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⁰⁾ 그러나 발해사 일만복의 사명은 발해에서 음성을 배우고 일본으로 귀국한 內雄의 귀국안부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일만복은 발해에서 음성을 배우고 본국으로 갔던 유학생 內雄²¹⁾이 귀국安否를 알리지 않자, 이를 의논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지고 온 문왕의 표문을 둘러싸고 일본조정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하여 使命은 완수할 수 없었다.²²⁾

발해가 일본유학생 내용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만복 일행을 파견한 것은 소식을 가져 올 일본사가 발해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입당승 戒融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당의 칙사 한조채는 당에 유학하고 발해를 경유해 본국으로 귀국한 계융의 정보가 이르지 않자, 발해를 경유해 신라에 왔던 것이었다.²³⁾ 이 때 당의 칙사 한조채가 신라에 온 것은 계융의 귀국안부를 천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²⁴⁾ 입당승 계융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진적인 문화수준을 자랑하던 발해는 유학생 내용의 귀국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수대부 일만복 일행을 파견하였던 것이다.²⁵⁾

일본유학생 내용이 발해에게 배운 것은 ‘渤海樂’이었다. 740년 발해사

20) 박진숙, 1997 앞의 논문, 56쪽; 具蘭憲, 1999 앞의 논문, 34쪽.

21) 『續日本紀』 卷24, 天平寶字 7年 10月 乙亥에 의하면 계융과 함께 귀국한“我學生高內躬”은 발해에서 음성을 배운 일본유학생이라고 하였고, 『續日本紀』 卷32, 寶龜 4年 6月의 기사에 의하면 渤海國에서는 內雄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생 내용은 763년 발해에 갔던 船主 板振鎌束이 귀국할 때 동행한 고내궁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22) 귀국 도중 폭풍을 만나 귀국이 지체됨에 따라 발해는 내용과 일만복의 소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773년 오수불일행을 일본에 파견하였던 것이다(『續日本紀』 卷32, 寶龜 4年 6月 丙辰).

23) 『續日本紀』 卷24, 天平寶字 7年 10月 乙亥.

24) 浜田耕策, 앞의 논문, 414-416쪽.

25) 구난희, 앞의 논문, 34쪽. 발해사 일만복의 사행목적에 대해 내궁은 763년 板振鎌束의 귀국시에 동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아 수궁할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하였다.

기진몽 일행이 처음 발해약을 일본 왕실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하여,²⁶⁾ 발해약은 동대사의 장엄하고 성대한 범회에서 대당악과 함께 연주될 정도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일본 왕실의 발해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내용으로 하여금 발해에 유학하여 발해약을 배워 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선진적인 문화수준을 자랑하던 발해는 일본에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의 사신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표 1】 문왕대 후기 일본에 파견된 발해사

파견 연도	사신명	관직명	입경 여부
771년 (문왕35)	壹萬福	靑綏大夫	325명중 40여명입경
773년 (문왕37)	烏須弗		40명 전원 방환
776년 (문왕40)	史都蒙	獻可大夫	167명중 40여명입경
778년 (문왕42)	張仙壽	獻可大夫	미상, 입경
779년 (문왕43)	高洋粥		359명 방환
786년 (문왕50)	李元泰		65명 방환

「표 1」에서 보듯이 문왕은 집권후기에 해당하는 770년대 이래 모두 6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특히 771년에서 779년의 단기간에 5차례의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그 인원도 180명에서 3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해는 문화적 영향력을 일본에 주지시키기 위한 문화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왕의 붕어와 즉위를 맞아 조문사, 경축사를 표면적인 사명으로 하여 사신을 파견하는 국가간의 의례외교를 통하여 국가의 권위를 과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²⁷⁾ 그러나 기왕의 경우 8세기 후반 발해는 발해측의 국내사정과 관련하여 대규모

26) 『續日本紀』 卷13, 天平 12年 正月 丙辰.

27) 『續日本紀』 卷34, 寶龜 7年 12月 乙巳.

교역에 종사하기 위해 민간인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런데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평성경에 입경하는 사신의 수는 일부에 불과하였고, 『延喜式』의 규정에 의하면 일본과 외국과의 교역은 평성경에서 관료기구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延喜式』에 나타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무릇 번객의 내조에 응해서 交關에 임하려면, 丞·錄·史生(대장성의 관인)이 藏部·價長 등을 이끌고 客館에 나아가 內藏寮와 함께 해야 한다 (『延喜式』 卷30, 內藏省 蕃客來朝條).

라고 하여 외국과의 교역은 대장성과 내장료가 주도하여 객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조정은 평성경에 들어온 외국사신을 객관에 안치하고, 빈객으로서 빈례의 과정에서 일본측 관료기구인 대장성과 내장료를 매개로 해서 교역을 행하였던 것이다.²⁹⁾ 따라서 발해와 일본의 교역도 연희식의 규정대로 거행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사신을 파견하더라도 입경하는 사신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율령체제하에 있던 관료기구를 매개로 하는 공적인 교역을 추진하였고, 이외에 사적인 교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이와 같은 기본 방침을 발해사 일행이 위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³⁰⁾ 따라서 양국교역은 평성경에

28) 李成市, 앞의 책, 153-155쪽. 그러나 발해가 말갈지역을 통합한 것은 740년대 전후이며 이와 관련된 사신단의 확대사례는 이미 743년에 나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시기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구난희, 앞의 논문, 34쪽).

29) 田島公, 1985 「日本律令國家の‘賓禮’--外交儀禮より見た天皇と太政官」 『史林』 68-3; 森公章, 1995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その變遷」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平野卓治, 1988 「日本古代の客館に關する一考察」 『國學院雜誌』 89-3.

입경한 발해사가 일본측 관료기구인 대장성과 내장료를 매개로 객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³¹⁾ 당시 일본과 외국과의 교역은 경사중심의 교역체제를 원칙으로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성경에 입경하는 사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便所에서 사적인 교역에 종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발해가 이전과는 달리 대규모의 사신을 파견한 것은 일본에 대한 발해의 국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8세기 후반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성장한 발해는 고구려시대의 천하관을 보다 정연하고 완벽로 구조로 완성하였을 것이다. 8세기 후반 발해는 말갈족을 번국으로 상정하고 우월한 지위를 표명할 정도로³²⁾ 발해중심의 국제질서를 완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 중심의 상하서계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발해가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국가적 자신감은 770년대 발해사가 지참한 국서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발해사 일만복이 가지고 온 국서에 대해 일본조정은 그 문사가 無禮하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하였다. 즉 발해사가 지참한 국서 가운데에 신하로서의 관품과 성명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참람되어 ‘天孫’이라고 칭호를 쓴 것과 양국관계를 고구려 때와 같이 형제로서 칭하지 않고 姑舅관계로 설정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이다.³³⁾ 뿐만 아니라 일본조정은 발해사 일만복에 대한 빈례를 중지하도록 하고, 신물도 받지 않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다. 일본조정이 강하게 항의한 내용은 국서에서 발해

30) 박석순, 2002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경인문화사, 128쪽.

31) 실제로 객관을 이용한 예는 天平 12년(740) 正月 丙辰條에 객관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대사에게 증위, 증물한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따라서 평성경의 객관도 객관의 장으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平野卓治, 앞의 논문, 43쪽).

32) 『冊府元龜』 卷976, 德宗 貞元 14年 11日 戊申.

『唐會要』 卷219, 黑水靺鞨.

33) 『續日本紀』 卷32, 寶龜 3年 2월 己卯.

가 ‘天孫意識’을 표명하는 등 일본보다 상국으로서의 우월한 위상을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고구려왕의 신성성의 상징으로서 ‘天孫意識’을 발해가 계승한 것이라면, 문왕대 후기 발해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계승하여 보다 정연하고 완비된 구조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발해 중심의 상하세계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발해가 일본보다 上國이라는 인식은 발해사 烏須弗, 高洋粥이 지참한 국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발해사가 지참한 국서의 내용은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일본에 공손하지 않은 국서는 하나 같이 정사에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발해사 오수불이 올린 표함의 내용이 대해 “일만복이 올린 표의 말이 교만하였는데 지금 오수불이 올린 표함 역시 예에 어긋나고 무례하다.”³⁵⁾고 하였고, 발해사 고양죽이 올린 국서에 대해서 “국서의 내용이 무례하니, 올리지 말라.”고 하여 일본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³⁶⁾ 이것은 발해가 번국의 종속적 외교형식을 감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보다 상국으로서의 우월한 위상을 과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³⁷⁾

8세기 후반 일본은 발해의 고압적 태도로 인한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발해의 대일본외교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재편을 시도할 정도로 대내외적 성장을 이룩한 발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발해의 국가적 성장을

34) 石井正敏, 1974 「日渤海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 제4호, 中央大學;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재수록, 297쪽.

35) 『續日本紀』 卷32, 寶龜 4年 6月 丙辰.

36) 『續日本紀』 卷35, 寶龜 10年 11月 乙亥.

37) 발해사 오수불이 올린 국서의 경우 양국관계를 姑舅관계 대신 如兄如弟라고 하여 발해가 내세운 고압적 태도를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구난희, 앞의 논문, 37쪽). 그러나 일본이 표무례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발해가 일본에 대해 상국으로서의 우월한 위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인정하면서 발해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776년 파견된 발해사 사도몽에 대한 일본조정의 태도변화를 통하여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천황은 삼가 발해국왕에게 문안한다. 사신 사도몽 등이 멀리서 바다를 건너 와서 즉위를 경하하니, 돌이켜 보건대 덕이 부족함이 부끄럽고 외람되게 왕위를 이어 마치 큰 강을 건너는데 건널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발해왕은 典故를 통해 외국과 조빙하는 법을 닦았고, 維新을 통하여 慶寶를 복되게 하였으나, 그 간절한 정성은 진실코 가상하도다. (사)도몽이 우리 해안을 거의 닿을 즈음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사람과 물건들을 잃고 타고 갈 배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을 생각하고 이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프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슬픔보다 배나 더하므로 배를 만들어 사신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아울러 絹 50疋, 타 50疋, 絲 200絢, 綿 300屯을 부친다. 또한 사도몽의 청에 따라 黃金小 100兩, 水銀大 100兩, 金漆 1岳, 海石榴油 1岳, 水精念珠 4貫, 檳榔扇 10 枝를 보내니, 도착하면 받으라. 여름 별이 뜨겁다. 편안하기를 바란다(『續日本紀』卷 34, 寶龜 8년 5월 庚申).

즉 일본천황은 발해국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은 典故를 통해 외국과 交聘하는 법을 닦았고, 維新을 통하여 慶寶를 복되게 하였으니, 그 간절한 정성을 진실코 가상하도다.”라고 하여 발해 문왕이 유신을 실행하고 연호를 고쳐 大興에서 寶曆으로 개원한 것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것은 문왕이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과와 영향이 어떠했든가를 일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발해에 대한 태도변화는 발해사 사도몽이 국서를 휴대하지 않고 구두로 대신하고 신물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이 없었고, 관위를 내리는 등 발해사에 대해 전례없이 극진한 대우와 관직을 수여한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³⁸⁾

발해에 대한 태도변화는 율령체계를 표방하던 일본이 발해와의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번국의 종속적인 자세를 감수하지 않는 발해사에 대해 일본은 발해와의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발해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³⁹⁾ 심지어 발해사 사도몽이 기존에 거래되지 않았던 물품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국시에는 일본이 高麗朝臣殿繼를 送使로 함께 파견한 것은 발해와의 관계증진을 호의적으로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⁴⁰⁾ 이렇게 일본이 발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한 것은 발해와의 교역을 통한 발해산물의 수입이 발해와의 외교에 있어 하나의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⁴¹⁾ 이것은 내착지 이용강요문제와 관련한 양국간 교역의 실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IV. 來着地 利用 與否와 兩國交易의 實態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8세기 후반 발해는 일본에 대해 시종 고압적인 외교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일본외교자세를 확립할 수 있었다. 8세기 후반 들어 국제사회에서 발해의 위상은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있었음을 인식한 일본은 발해의 고압적 태도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해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는 발해

38) 『續日本紀』 卷34, 寶龜 8年 4月 戊申.

39) 『續日本紀』 卷32, 寶龜 3年 正月.

『續日本紀』 卷32, 寶龜 4年 6月 丙辰.

40) 박석순, 앞의 책, 101쪽.

41) 구난희, 앞의 논문, 39쪽.

와의 교역을 통한 발해산물의 수입에 있었다. 이것은 발해사에 대한 내착지 이용문제와 양국간 교역의 실태에 대한 실상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내착지 이용 규정이란 발해사로 하여금 북륙지방에 도착하지 말고 축자의 길을 이용할 것을 강요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르는 용어이다. 773년 발해사 오수불이 올린 표에 대한 답서에서 일본조정은 “(상략) 또한 발해의 사신이 이 길을 취하여 내조하는 것은 전부터 금한 일이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옛날의 예에 따라 축자도를 따라 내조하도록 하라”고 하여⁴²⁾ 발해사 오수불 일행에게 지금 이후로는 전례에 따라 북로 대신에 축자도를 이용하여 내향할 것을 규정하였다.⁴³⁾

그러나 발해사의 경우 리만해류를 따라 동해를 건너기 때문에 실제 출우, 월전, 월후, 능등, 은기, 출운 가하 등 북륙지방이 주된 도착지였다. 발해의 지리와 당시의 항해법상으로 발해사가 축자의 길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적은 무리한 요구였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시기 발해사에게 축자도의 이용을 강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이 발해사에게 축자도의 이용을 강요한 것에 대해 일본학계는 교역에 따른 부담 등으로 발해와의 외교를 기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자 하였다. 즉 발해사의 방문에 대한 거부 의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42) 『續日本紀』卷32, 寶龜 4年 6月 戊申.

43) 발해사 오수불에게 일본이 북로 대신 축자도로 내향할 것을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는 일만복과의 외교마찰과 蝦夷문제를 최대이유로 들기도 한다(石井正敏, 1970 『太宰府の外交面における機能』 『法政史學』 22, 38쪽; 及川儀石衛門, 『渤海國と日本の交通路』 『滿洲通史』 참조).

44) 윤명철, 1995 「해양조건을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 『일본학』 14, 68-76쪽.

45) 新妻利久, 1951 「渤海國使に對する海路法規の研究」 『國史學』 56, 370-375쪽. 이 외에도 광인조의 외교 단일화 위한 조치, 또는 다채널을 개방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石井正敏, 2001 앞의 논문,

그러나 776년 사도몽의 예에서 보듯이 이 시기 일본과 발해의 교역이 오히려 증가하고 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발해와의 외교기피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시기 일본은 발해와의 교류를 통해 교역에 의한 물품의 구매욕구와 대발해외교를 통한 정권의 대외적 정당성 확보라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⁶⁾

일본이 내착지 이용을 규정한 것은 발해와의 외교적 마찰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발해와의 교역창구를 경사에서 태재부로 단일화하려는 조치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태재부는 외국사절의 迎送을 담당하는 이른바 외국과의 접촉창구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8세기 중반 이래 일본 대외교역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8세기 중반 대외교역의 장이 경사교역에서 태재부교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근거로 중시되어온 사료는 『續日本紀』 卷29, 신호경운 2년(768) 동 10월 갑자조의 다음의 기사이다.

左右大臣(藤原朝臣永手, 吉備朝臣眞備)에게 大宰의 綿 각 2만둔, 大納言의 諱(白壁王)과 弓削御淨朝臣清人에게 각 1만둔, 從2位文室眞人淨三에게 6천 둔, 中務卿從3位文室眞人大市와 式部卿從3位石上朝臣宅嗣에게 4천둔, 正4位下伊福部の 女王에게 1천 둔을 내린다. 신라의 交關物을 매입하기 위함이다(『續日本紀』 卷29, 神護景雲 2년 10月 甲子).

사료에서 일본이 좌우대신이하 고관에게 ‘신라의 교관물을 매입하기 위해’ 태재부의 질이 좋은 면을 하사한 사실은 이전 왕권 사이의 교역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과 방법의 교역이 향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적어

468쪽).

46) 구난희, 앞의 논문, 44쪽.

47) 酒寄雅志, 1979 「七-八世紀の太宰府--對外關係を中心として」 『國學院雜誌』 80-11, 37쪽.

도 이 사료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768년 태재부에서 신라와의 대규모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은 경사교역에서 태재부교역으로 바뀌는 초기형태(기점)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다시 말해 768년 교역은 9세기 태재부 교역의 선구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768년 이래 대외교역의 장이 경사에서 당시 외국과의 접촉 창구였던 태재부로 이동하였음을 감안할 때, 발해사에게 축자도의 이용을 강요한 것은 발해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동시에 일본이 발해와의 관계를 교역중심의 외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호탄이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증여와 사여’라는 공무역형태에서 점차 외교적 마찰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가 분화되는 사무역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일본이 발해와의 외교적 마찰속에서도 발해사의 입조 루트를 규정화한 것은 발해와의 교역이 대발해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상당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2】 문왕대 후기 발해와 일본의 교역품

회	사신명	발해 → 일본	일본 → 발해
1	일만복	신물	美濃純30疋, 絹30疋, 絲150구, 調綿150屯 己珍蒙에게 美濃純20疋, 絹10疋, 調綿200屯, 故大使에게 調布115端, 庸布60段
2	사도봉	국신물	絹40疋, 美濃純30疋, 絲200絢, 綿300屯, 錦4疋, 兩面2疋, 纈羅4疋, 白羅10疋, 綵帛40疋, 白綿100帖, 따로 천황으로부터의 賜物로서 綿 10,000屯
3	장선수	방물	純30疋, 美濃純30疋, 絲200絢, 調綿300屯

「표 2」에서 보듯이 8세기 후반 일본의 교역품은 섬유제품과 납방산

48) 李成市, 앞의 책, 187-190쪽.

특산물인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발해의 교역품은 신물, 국신물, 방물로 표기하고 있어 정확한 품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례에 의하면 발해는 모피를 비롯한 인삼·꿀과 같은 특산물과 당에서 유입되는 각종의 진귀한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었을 것이다. 특히 발해사신이 배에 싣고 오는 모피의 양에는 자연히 한도가 있어 궁중귀족사회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치품인 모피를 사 입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징이 되어 귀족들이 갈망하는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발해의 특산물인 인삼과 꿀도 일본귀족이 갈망하는 품목이었음은 물론이었다.⁴⁹⁾

발해는 치정번진과의 교역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치정번진의 중심지역인 양주는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산의 집산지였다. 그러므로 발해는 자체 생산한 특산물을 비롯하여 당, 동남아의 진귀한 물품을 일본에 중계무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일본은 건당사의 입당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당의 진귀한 문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본은 중계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8세기 중엽이래 신라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일본은 신라와의 교역을 통한 당물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8세기 후반 당과의 중계무역에서 신라를 대신해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발해였던 것이다. 『삼대실록』 원경 1년 6월 25일조의 기록에 나타나는 玳瑁의 존재는 발해가 일당간에 있어 중계무역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⁵⁰⁾

발해와의 교역이 대발해외교의 중요한 축이었던 일본은 발해사의 북로내조의 부득이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일본은 발해사의 축자도 이용에 대한 금령을 해제하고 북로도 축자도와 마찬가지로 발해사에 대해서 규정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780년(보קי 11년) 7월 26일 태정관부에서 북방의 제국에 통보한 다음의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

49) 上田雄・孫榮建, 1990 『渤海日本交渉史』 六興出版, 92-99쪽.

50)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 『日本歴史』 438호, 80-85쪽.

다.

勅

曰 筑紫太宰 僻居西海 諸蕃朝貢 舟楫相望 由是簡練士馬 精銳甲兵 以示威武 以備非常 今北陸之道 亦供蕃客 所有軍兵 未曾教習 屬事徵發 全無堪用 安必思危 豈合如此 宜准太宰 依式警固 事必緣海村邑見賊過者 當即差使速申於國 國知賊船着 長官以下急行國衛 應事集議 今管内司警固且行且奏 其一 賊船卒來着我邊岸者 當略百姓執隨身兵 并賚私糧走趣要處 致死相戰 必待救兵 勿作逗留命賊乘間 其二 軍所集處預立標榜 宜量地勢 務得便宜 兵士已上及百姓便弓馬者 量程遠近結隊分配 不得臨時彼此雜亂 其三 戰士已上 明知賊來者 執隨身兵 兼佩笮幣 發所在處 直赴本軍 各作軍名 排比隊位 以靜待動 乘逸擊勞 其四 應機赴軍國司已上皆私馬 若不足者 卽以驛傳馬充之 其五 兵士白丁赴軍 及待進止 應給公量者 計自起家五日乃給 其閑處者給示 要處者給糒 其六

寶龜 十一年 七月 二十六日

위의 태정관부는 병사에게 무장시켜야 할 일을 북해의 緣海諸地에 내린 칙령이다. 태정관부의 칙령에서 일본은 발해사의 북로내조를 승인하였음을 북해연안제국에 알리고 이와 함께 연해제지에게 엄격히 군계 지치고, 적선이 올 경우에 관민이 취해야 할 조치와 그 급여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今北陸之道 亦供蕃客’은 773년 태정관처분에 의한 발해사에 대한 북로내조의 금령이 780년 7월 26일 해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발해국사가 축자도로 내조하는 것은 지리상으로 무리임을 인정하여 북로로 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780년 축자도의 금명을 해제하고 북로내조를 승인함에 따라 이후 내조하는 발해사는 북로에 규정된 입항지인 敦賀, 福良 등에 입항하였던 것이다. 돈하는 축자도로 내조한 번객이 태재부에서 입조에 관한 여

러 수속을 마치고 바다로부터 내해를 동쪽으로 항행하여 난파를 지나 입경하였던 축자도 항로의 종점인 난파에 상당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고, 복량은 흡사 축자도 바다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돈하, 복량은 규정 입항지로 지정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다.⁵¹⁾ 북로내조의 공식적 승인은 804년 이곳에 발해 객원이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상에서 8세기 후반 발해 문왕은 집권 후기에 해당하는 770년대 일본에 대하여 시종 일관 일본보다 上國의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례외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증여와 사여의 형식을 통한 공적인 교역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발해의 고압적 자세에서 비롯한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발해와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전개시키려는 의도에서 발해사의 입조루트를 북로 대신 축자도로 규정화하려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해사가 축자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따라서 축자도의 이용을 해제하는 동시에 북로로의 내조를 승인하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8세기 후반 발해는 안사의 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당과 신라와의 관계증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국제관계의 재편을 조정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격상된 발해는 일본에 대해 시종일관 일본보다 上國의 우월

51) 新妻利久, 앞의 논문, 373-377쪽.

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례외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증여와 사여의 형식을 통한 공적인 교역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8세기 후반 발해가 대일본외교의 자세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을 통한 경제적인 실익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발해의 고압적 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로 대발해외교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세기 중엽이래 신라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일본은 신라와의 교역을 통한 당물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8세기 후반 건당사의 파견마저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해와의 교역은 대발해외교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발해와의 외교적 마찰 속에서도 발해의 교통로 및 항해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8세기 후반 발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해는 대일본외교의 자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교역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발해와의 교역을 통한 실익이 대발해외교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에 울릉제국가라는 명분보다는 사실상 경제우선의 외교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李成市,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 찰스 피터슨/ 김정희 역, 1999 「중흥의 완성; 헌종과 번진」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 박시형, 1979 『발해사』 이론과 실천.
- 유진오/ 전인초 역, 2003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 박석순, 2002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경인문화사.
- 金文經, 1984 「唐代高句麗遺民의 藩鎮」 『唐代的 社會와 宗教』 송실대출판부.
- 金浩東, 1988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知識産業社.
- 日野開三郎, 1984 「安史の亂による唐の東北政策の後退と渤海の小高句麗國占領」 『小高句麗國の研究』 吉川弘文館.
- 孫玉良, 1982 「略述の大欽茂其統治下渤海」 『社會科學戰線』 1982-4.
- 石井正敏, 1974 「日渤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國意識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 제4호.
- 石井正敏, 2001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門館
- 新妻利久, 1951 「渤海國使に對する海路法規の研究」 『國史學』 56.
- 박진숙, 1997 「발해문왕대의 대일본외교」 『역사학보』 153.
- 具蘭意, 1999 「8世紀 後半 日本의 對外關係에 관한 고찰--渤海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10집.
- _____, 2005 「대일본 관계를 통해본 발해의 외교전략」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 윤명철, 1995 「해양조건을 통해서 본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 『일본

학』 14.

조이옥, 2005 「8세기 후반 발해와 일본의 외교적 마찰--문왕대 후기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1.

최의광, 1999 「渤海 文王代の 對唐關係」 『史叢』 50.

K C I

Abstract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of Balhae-Japan in the later 8th century

Cho, lee-Ok

The many papers on the relations of Balhae-Japan in the later 8th century have mainly dealt with the conversion of the political diplomacy to the economic one from the Japanese point. In other words, it has been regarded as an economic reason that Balhae dispatched envoys on a large scale to Japan to talk over the trade issue when Japanese withdrew its devil design for invading Shilla.

Balhae, however, dispatched the a large number of the envoys consisting of about 180 to 300 people to Japan five times within the short period of the later reign of king Moon from 771 to 779, It is notice-able that Balhae consistently took high-handed diplomatic policy even to cause the diplomatic friction with the sovereign's message born by a Balhae envoy. It means the change of Balhae's diplomatic policy toward Japan that Balhae dispatched a large diplomatic mission.

Shortly, Balhae rapidly grew in the later 8th century and there was a change in both domestic and abroad situation. It is thought that it made Balhae lead the large scale trade with Japan as well as adopt a very uncompromising position on the diplomatic issues.

Key words: Balhae's envoy,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position, Trading post, Rearrangement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Arrival point,

K C I

к с і